

## 2024년 7월 7일 "(아바드의 사람들 16) 성령의 열매를 맺다"(갈 5:22-24)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바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육체의 방식과 성령 안에서 사는 것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위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권면합니다(5:5, 16, 17, 18).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18 절)에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3:2-3 참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율법이 지향하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 조항들을 지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가능해집니다.

율법은 백성들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자신이 얼마나 주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역할은 형식적이 되고, 반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습니다(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

그래서 율법에 하자가 없는 행동을 할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비판/정죄하였습니다(율법주의). 이것이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받았는데도 육체로 사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을 자기를 의롭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었고, 바울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며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우들을 꾸짖었습니다.

### [2]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려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행태는 육체로 사는 차원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키는 사랑입니다.

5:6 '...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5:14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여기서 성령 생활은 구체적인 사랑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추상적이지 않음). 성령 생활은 통제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고,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성령 생활은 구체적 사랑의 모습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의 항목들은 모두 사람의 성품과 관계향상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반면 율법 중심의 삶에는 분란이 많습니다. 서로가 옳고 그른 것을 주장하고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차 멸망합니다(5:15). 복음을 믿는 교회조차도 율법주의적 방식이 만연할 때 싸움과 분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면 다시 육체적 차원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선한 것도 강령과 금기가 지배하면 입술로는 복음을 말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은 무엇일까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신의 육체(의 방식)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고(24 절)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와 자기의 방식과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라 하더라도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도 율법의 방식대로 살 수 있음을 경계하고 율법적 사고/안목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사랑하기에 힘쓸 때 삶의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길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바울이 지적하는 갈라디아 교우들이 빠진 함정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어떤 방식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까?
2.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